



장안창작마당.



육천길.

순천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열린다

문화의 거리 일원서 24일부터 3일간 도시재생 골목투어로 모범사례 체험 전국 청년, 활동가 업무 공유 토크도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국토교통부, 전남도 공동주관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생태·문화·역사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4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실제로 실행된 순천시 향동, 중앙동 사업 현장에서 재생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야외행사로 진행된다.

그 동안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대전, 2016년, 2017년 세종, 2018년 대구 등 광역자치체에서 개최해왔다. 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도시재생 정책홍보와 토론, 학술행사 위주의 실행행사로 치러졌다.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은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을 통해 전국 시범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17개의 청년창업, 40개의 사회적 경제 법인이 생겨나고, 187동에 이르던 빈집도 7동으로 줄었다. 골목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당초 큰 건물에 집중 조성할 예정이던 창작예술촌은 곳곳에 흩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4개의 거점을 만들어 서로 연결했다. 문 닫은 파출소와 식당건물, 오래된 폐가들이 이제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

마을 주민들의 소모임, 놀이공간 등 학습과 공동체 예술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순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공공거점 시설들을 둘러보면 다양한 생활SOC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창작예술촌과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장안창작마당, 서문안내소 등 거점공간 뿐 아니라 공방과 지역의 청년들이 문을 연 카페와 식당, 사진관 등 골목길 안에 숨어있는 재미난 공간들을 만나는 '도시재생 골목투어'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도심에 안내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국토교통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 혁신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17개 시·도 정책홍보관은 인구 및 상권 감소, 노후 건축물이 많아 도시쇠퇴가 급속하게 진행지역 중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의 사업추진 우수사례와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전시되며 활동가, 주민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268개 도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된 국토교통부형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도별로 2개씩 선정돼 이번 행사에는 전국 34개소 업체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전국 사회적 경제조직들간 정보공유와 전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한곳에서 직접 보

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활동가, 공무원들이 함께 성공과 실패사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크쇼 형식의 업무 공유대회, 워크숍, 감성옥상 파티도 준비돼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든 17개 시·군의 주민조직이 선진도시 사업 참여 과정을 직접 발표하는 주민참여 경진대회가 펼쳐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마당 행사는 700년 골목길을 포함한 선도지역내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골목투어와 정부·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관, 다양한 토론과 학술행사, 전시 공연 등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동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김학민기자 balaboda2@srb.co.kr

순천에 모인 세계 랍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제1회 랍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다.

순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시아랍사르지역센터가 주관하는 지자체장 회의에는 랍사르협약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도시에서 약 100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가한다.

동아시아랍사르지역센터는 랍사르협약 사무국에서 공식 인증한 국제기구로 2016년부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랍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랍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해 도입된 제도다.

이후 3년간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신청·평가가 이뤄졌고, 2018년 제13차 랍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7개국 1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는 랍사르협약에서 습지도시 브랜드를 수여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8개 습지도시가 함께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네트워크다.

지자체장 회의에서 18개 습지도시들은 습지 보전 정책과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김학민기자 balaboda2@srb.co.kr

담양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성료'

담양군은 지난 20일 담양 일원에서 '제16회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광지탐방·문화체험·전통놀이 및 장기자랑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창평솔로시티 탐방과 전통한과 만들기 체험, 제기차기, 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과 한국노래 부르기 등 끼와 장기를 발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추수이나 설 명절에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hn7808@srb.co.kr

'음식물가 한눈에'... 모바일 앱 '여수맛' 출시

여수시는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인 음식물가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수맛'이라 이름 붙은 이 앱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 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됐다.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수맛'을 다운로드하면, 음식점 메뉴, 가격, 영업시간, 주차 공간 등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착한 가격업소, 여수10미 취급 음식점, 조식 제공업소, 시민할인 정보 등도 검색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메뉴에 리뷰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맛집과 메뉴도 관리할 수 있다. '여수맛'은 여수 소재 음식점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0월 현재 음식점 821개가 등록돼 있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 참여 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수=강영수기자 kms3056@srb.co.kr



고흥군, '운대리 발굴 분청사기' 한자리에

31일부터 8기 출토 유물 전시회

고흥군 운대리 발굴 분청사기 등 고흥의 분청사기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고흥군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8기에 대한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고흥 분청사기, 담병에 물들다' 기획전시회를 오는 31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 성과전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이래 고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시로, 운대리 발굴의 시작인 1호 가마를 비롯해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된 총 8기의 가마와 출토 유물이 전시된다.

고흥 운대리는 과거 담병 분청사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한 대규모 가마터가 밀집한 곳으로서,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과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분청사기 발, 접시, 잔, 병, 호, 고추배, 장군, 벼루, 제기 등 실생활에서 사용된 다양한 유물 만나볼 수 있다.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담병 기법 등 7가지의 장식기법도 볼 수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발굴조사단의 생생한 현장 조사 모습과 발굴조사 중인 가마의 전경 등을 사진에 담아 발굴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관람 이외에 분청사기 도형에 직접 문양을 찍어보는 체험장을 별도로 설치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 성과전을 통해 고흥 분청사기의 위상과 조상들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고, 도자 문화를 이해하고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박용주기자 dydwn8199@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1029 디자인건축"

신축 및 상업공간 & 주거공간

3D설계도면, 견적, 자재산출 가장 큰 만족도

☎ 1877-1029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 062)522-2424

타이티안 유기농 노니주스

신이 주신 선물 내물을 살리는 '노니'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노니주스

☎ 062)375-8494

365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보관이사 · 원룸이사, 사무실이전 전문업체

☎ 080-544-2400

깔끔한 일처리, 정직, 성실, 책임감으로 평생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 010-2649-7305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080-925-1234

백희트 황금빛 뉴크림잉어빵

"붕어빵 · 호떡 · 오뎅" 장사하실 분 모집

☎ 010-9038-1973